

中 독자 3G기술 '세틀이'

중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제3세대(G) 이동통신 표준인 이른바 TD-SCDMA 기술이 최근 시험통화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휴대폰 거인인 핀란드의 노키아 등 외국 유명 통신 업체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올들어 중국 측에 TD-SCDMA 기술 지원 의사를 밝힌 세계적인 통신 기업 중에는 노키아를 비롯해 미국 모토로라, 유럽의 필립스세미컨덕터와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LG텔레콤 등의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세계 3G 이동 기술인 WCDMA 진영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노키아의 요르마 올릴라 최고경영자(CEO)가 'TD-SCDMA 적극 지원'을 발표, 세계 통신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네덜란드의 필립스세미컨덕터와 삼성전자도 중국 최대 통신그룹인 다당과 3G 휴대폰을 개발하는 합작회사 'T3G'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TD-SCDMA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cdma2000'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의 'WCDMA' 그리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TD-SCDMA' 등 3개 기술을 오는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3G 이동 표준으로 결정했으며 올해 안에 이를 채택하는 4개 3G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니, 도시바 300mm웨이퍼 공장 건설 자금 지원

도시바가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일본 오이타에 건설중인 300mm웨이퍼 공장 건설 자금의 일부를 소니가 분담한다.

소니는 도시바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두 곳의 300mm웨이퍼 공장 건설 자금 3500억엔(약 3조5000억원)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니는 월 2만5000개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 이 공장에서 플레이스테이션용 칩을 생산할 것으로 보이며 소니와 도시바는 재정 지원 합의 사실이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장 건설의 재원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을 털어버리게 됐다.

도시바와 소니 및 미국의 IBM은 각자의 디자인과 제조 기술을 하나로 묶어 소니의 차세대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3에 사용할 칩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에버넥스, 알카텔·코닝 광사업부문 인수

중소 벤처업체 에버넥스가 세계 최대 광통신 솔루션업체 코닝의 광부품사업부를 인수키로 해 세계 광부품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나스닥 등록기업 에버넥스는 주식교환방식으로 코닝의 광부품사업부문을 인수키로 했다. 코닝의 광부품사업부문에는 지난 3월 합병을 발표한 프랑스의 통신장비업체 알카텔의

광사업부문이 포함돼 있어 이번 거래로 애버넥스는 코닝·알카텔의 광부품부문을 모두 확보한 셈이 됐다.

거래금액은 6740만달러로 인수 후 애버넥스는 알카텔과 코닝에 각각 자사 주식 28%(3520만주)와 17%(2140만주)를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애버넥스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애버넥스는 미국 뉴욕주 어원에 소재한 코닝의 광증폭기 생산라인과 이탈리아의 광부품 공장 등의 자산을 인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알카텔과 코닝이 보유한 광관련 1400개의 특허와 수천개의 라이선스도 확보하게 됐다.

또 거래 후 알카텔은 애버넥스에 1억1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코닝도 애버넥스에 2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애버넥스는 광기술 및 광시스템부문 기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버넥스의 월터 알레산드리니 회장은 “고속 광통신시대에 걸맞은 첨단 광기술과 지능형 광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계약에 따라 애버넥스는 코닝의 직원 400명과 알카텔의 프랑스·영국 등지의 직원 950명도 대부분 받아들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애버넥스는 종업원 수는 지난해 말 430명에서 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한편 세계 통신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알카텔과 코닝은 구조조정을 통한 현금 확보에 주력해왔다. 특히 코닝은 알카텔의 광사업부문을 인수한 후에도 제휴·매각 등을 통해 이 부문 사업철수를 검토해왔고 올해 말까지는 레이저발생기 생산라인을 갖춘 미국 매사추세츠주 소재 베드포드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텔, 인도에 R&D센터 건설 계획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미국 인텔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 지역에 총 4100만달러를 들여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인텔 인도법인의 무수미 두트대변인의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투자는 방갈로르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한 설비확장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방갈로르에 이미 대규모 반도체 설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인텔은 최근 오는 2007년까지 최고 2억달러를 투입해 이곳의 기술인력을 현재의 3배 수준인 3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카르나타카주 RV 데시판드 산업 장관도 현지 PTI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텔이 방갈로르 R&D센터에 최고 3000명의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인피니온·마이크론,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 RLD RAM II 발표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피니온과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독일 뮌헨에서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인 'RLDRAM II (Reduced Latency DRAM II)'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고 400Mhz 속도에서 동작하는 RLD RAM II는 통신 및 데이터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해 개발된 초고속 DDR SD

램이다. 36비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 초당 최고 28.8Gb의 대역폭을 구현한다. 인피니온이 개발한 이 아키텍처를 마이크로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디바이스를 출시하는 등 두 업체가 공동으로 이 규격을 지원하고 있다.

인피니온 D램 부문의 에른스트 스트라세 마케팅 이사는 'RLDRAM II는 엄청난 대역폭과 고속 데이터 접속을 요구하는 통신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에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팜, 무선PDA 첫선



세계 최대 PDA업체인 미국 팜이 처음으로 무선네트워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팜은 기업고객을 겨냥해 가장 많은 제품에 사용된 근거리 무선통신인 IEEE 802.11b를 지원하는 PDA인 '팅스턴C'를

개발, 발표했다.

세계 PDA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팜이 802.11b를 지원하는 PDA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텅스턴C는 다음달 5일부터 판매된다. 한편 팜은 텅스턴C와 함께 새 PDA인 '자이레71'도 선보였다.

AOL, '바이러스 제거' 유료서비스

미국 최대 온라인서비스업체 AOL이 유료

바이러스 보호 서비스를 시작했다.

AOL은 네트워크어소시에이츠 계열 맥아피 시큐리티컨수머와 공동으로 이 서비스를 개발해 지난달 말부터 월 2.95달러에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OL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포함해 컴퓨터에 존재하는 모든 바이러스의 근원을 체크해 조사하고 감염된 파일을 찾아 바이러스를 제거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나 웜은 물론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스템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매달 250개의 새로운 컴퓨터 바이러스가 제작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보호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온라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광대역 사용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AOL의 이번 서비스를 온라인 광고시장 위축 및 전화접속자 증가세 둔화를 상쇄시키기 위한 회사 수익구조 다변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AOL은 온라인 디지털 음악서비스인 뮤직넷을 비롯해 음성메일, 콜얼럿 등의 유료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AOL은 앞으로도 유료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 및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BM, 새 메인프레임 'T렉스' 내달 출시

IBM이 'T렉스(T-Rex)'라는 코드명의 새로운 메인프레임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이 'e서버z시리즈990'인 이 제품은 IBM이 지난 3년간 10억달러, 120명의 개발자를 투입해 개발한 제품으로 내달 16일 두개 모델

이 먼저 출시되며 이어 다른 두개 모델이 10월 말 시판된다. 또 9월부터는 전기처럼 사용한 만큼 비용을 받는 온 디맨드 형식으로 제공된다.

'z시리즈990' 메인프레임은 프로세서수가 이전 제품(z시리즈900)의 두배인 32개(32웨이)인데 지난 2000년 10월 발표된 'z시리즈900'은 약 4000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IBM의 시스템그룹 대표 윌리엄 자이틀러는 "새 메인프레임이 3년전 나온 이전 제품보다 성능이 3배 정도 좋아졌다"며 "정부, 대학, 금융서비스업체들을 주 대상으로 마케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장전문가들은 IBM의 수익 중 40%가 메인프레임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하며 새 메인프레임이 IBM의 매출과 수익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MS 임베디드용 OS
새 '윈도CE닷넷' 발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최신 임베디드용 윈도 운용체계(OS)인 '윈도CE닷넷4.2'를 발표했다.

'맥켄드릭(McKendric)'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이 제품은 '윈도CE닷넷4.2'는 셋톱박스를 비롯해 지역 게이트웨이, VoIP장비 개발자들을 위한 것으로 '윈도미디어9시리즈 코덱' '디지털 저작권관리 버전 7.1' 같은 것들이 추가됐다.

MS의 한 관계자는 "AMD·ARM·브로드컴·커넥트시스템스·인텔·딥스테크놀로지·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같은 반도체업체들과 협력해 윈도CE닷넷을 플랫폼으로 하는 VoIP용 최적화 칩을 개발하고 있다"며 "60개 이상의 협력업체들이 윈도CE닷넷4.2 공동개발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 프로그램은 지난해 1월 발표된 '윈도CE닷넷4.0(코드명 텔리스크)'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이며 "HP·NEC·파나소닉·도시바·TEC·삼성·히타치·미쓰비시·JVC 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MS는 1년후 '맥칼란(McCallan)'이라는 코드명의 차세대 제품(윈도CE닷넷5.0)을 내놓을 예정이다.

**UPS, 6가지 통신규격 지원하는
핸드헬드 기기 직원들에 지급**

미국의 택배업체 UPS가 배송 직원들에게 6가지의 통신규격을 동시에 채택한 업무용 핸드헬드 기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DIAD4(Delivery Information Acquisition Device)라는 이 기기는 블루투스과 적외선통신, WiFi,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cdma 1x, GPRS 등 6개의 통신규격을 지원한다. 직원들은 이 기기 한대로 어디서나 배송할 물건의 바코드를 인식, 즉시 관련 정보를 기업 전산망에 보내고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블루투스로 택배물의 바코드를 인식하고 휴대폰으로 본사에 관련 정보를 보내는 식으로 작동한다.

UPS는 "새 기기의 도입으로 세계 각지의 배송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UPS는 지난 91년부터 DIAD 기기를 직원들에 지급했으며 이번 기기는 네 번째 개선판이다.

지금까지 여러 통신규격을 지원하는 기기의 개발 노력은 많았지만 배터리 수명 등의 문제로 2~3가지 규격만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UPS는 이 기기가 6가지 통신규격을 동시에 모두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기용 배터리 사용시간은 하루 정도다.